

##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첫 만났지만...매각 관련 여전히 '평행선'

입력 2022.07.18. 오후 6:19

윤선훈 기자 >

1 3

가

사측, 매각 당위성 거듭 강조...노조 "대주주 바꾸는 것 핵심 아냐"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매각 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18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화학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온라인으로 간담회가 이뤄졌다. 회사 측에서는 김성수 카카오 공동체얼라이언트센터(CAC)장 겸 이사회 의장과 배재현 카카오 투자거버넌스총괄(CIO),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참석해 카카오모빌리티 직원들에게 매각 관련 설명을 했다.

## [기획] 한은, 사상 첫 빅스텝... "연말 연 3.0%까지 간다"

입력 2022.07.13. 오후 6:25 - 수정 2022.07.13. 오후 7:43

문혜현 기자 >

11 24

가

금통위, 기준금리 0.5%p 인상

전례없이 세차례 연속해서 올려

JP모건도 '3회 추가인상'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75%에서 연 2.25%로 올랐다. 한은이 통상적 인상 폭(0.25%p)의 두 배인 '빅 스텝'을 단행한 것은 기준금리 결정 역사상 처음이다. 더구나 한은은 앞서 4월, 5월 두차례 회의에서 0.25%p씩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세 차례 연속 인상도 전례가 없다.

## 올림플래닛, "메타버스 공간에서 삼성 비스포크·TV 즐겨요"

입력 2022.07.18. 오후 6:42

왕진화 기자 >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기업 올림플래닛(대표 권재현)은 메타버스 공간 플랫폼 엘리팩스로 삼성전자 '비스포크 홈 메타'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내 집 구조와 유사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비스포크 홈 메타는 올해 삼성전자 가전제품을 휴대전화와 PC를 통해 메타버스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흥대본점, 삼성대치본점, 서초본점에서는 가상현실(VR) 체험형 기기로도 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된다.

안호준 올림플래닛 부사장은 "메타버스 시대에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용자 경험이 증시되고 있는 만큼 고객 경험에 대한 관심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브랜드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랜섬웨어 공격에 전국 곳곳 콜택시 마비... 긴급 복구 중

입력 2022.07.18. 오후 5:58

이종현 기자 >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택시 운영·시스템 개발 업체가 해킹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 부산,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지역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18일 해킹 피해를 입은 업체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에 해외 해킹조직에 의한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됐다. 피해 사실이 확인돼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공격의 유형은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로 알려졌다. 현재 서버 복구를 위해 해커와 접촉, 요구하는 암호화해를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해커가 요구한 것은 7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데이터 복구 키로 긴급복구를 진행 중인데 2~3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시스템 장애로 애플리케이션(앱) 대신 전화연결을 통해 배차를 진행 중이나 전화가 몰림에 따라 일부 지연도 발생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택시 업체의 해킹 피해는 확인했다. 아직 KISA에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정식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기업은 올초까지 KT의 계열사였던 기업이다. 지난 1월 매각이 이뤄졌다.

## 애플, "세계 이모티콘의 날, '미모티콘' 써보세요"

입력 2022.07.18. 오후 4:50



백승은 기자 >